

■ 특집 ■

C. L. R. 제임스와 카리브의 탈식민화

하영준

I. 머리말

1958년 4월 C. L. R. 제임스는 거의 30년 만에 자신의 모국인 트리니다드로 돌아왔다. 그를 초대한 것은 우리에게 『자본주의와 노예제』로 잘 알려진 윌리엄스(Eric Williams)였다.¹⁾ 제임스와 윌리엄스는 오랜 친분 관계가 있었다. 윌리엄스는 제임스가 트리니다드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의 학생이었다. 이들의 학문적 관계는 제임스가 1932년에 영국으로 이주한 후에도 유지되었다. 곧 윌리엄스도 영국 옥스퍼드 대학로 유학을 가서 역사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제임스로부터 자신의 박사논문에 관련된 도움을 받았다. 이후 윌리엄스의 박사논문은 『자본주의와 노예제』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²⁾ 대서양 플랜테이션 노예제가 근대 산업 자본주의의 출현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는 박사논문의 핵심 주장은 상당 부분 『블랙 자코뱅』의 문제의식을 계승한 것이었다. 윌리엄스에게 제임스는 일종의 학문적 스승이었다.

1) 이 시기 제임스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Paul Buhle, *C. L. R. James: The Artist as Revolutionary* (New York: Verso, 1988), pp. 142-1153; Kent Worcester, *C. L. R. James: A Political Biography*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6), pp. 147-171; Dave Renton, *C. L. R. James: Cricket's Philosopher King* (London: Haus Books, 2007), pp. 121-143을 참조.

2) Selwyn Ryan *Eric Williams, The Myth and The Man* (Jamaica: University of the West Indies Press, 2009) p. 35.

그러나 윌리엄스는 제임스의 정치적 신념을 따르지는 않았다. 윌리엄스는 영국 지배로부터 트리니다드의 독립을 간절히 원하는 반식민주의 민족주의자였지만, 제임스와 같은 국제주의적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니었다. 윌리엄스는 트리니다드로 귀국해서 민족주의 정당인 〈민중민족운동(Peoples National Movement)〉을 조직하고 지도자가 되었다. 그러나 윌리엄스는 트리니다드의 반식민주의 투쟁에서 제임스의 도움을 필요로 했고, 국제적으로 반식민주의 투쟁을 지지했던 제임스는 기꺼이 도움에 응했다. 그래서 1955년 윌리엄스는 런던에서 제임스의 도움을 받으며 〈민중민족운동〉의 당 강령을 준비하기도 했다. 〈민중민족운동〉은 곧 영국령 트리니다드의 자치의회에서 다수정당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1956년 선거에서는 약 39%를 득표했다. 그러나 윌리엄스는 자신의 당을 단순히 정치적 명망가들의 선거정당이 아니라 잘 조직된 대중 정당으로 만들기를 원했다. 그는 제임스에게 당을 조직하는데 다시 한 번 도와주기를 요청했고, 제임스는 이에 기꺼이 응하게 되었다. 1958년 제임스는 윌리엄스의 초청으로 귀국한 후, 곧 〈민중민족운동〉의 당 기관지였던 《네이션(Nation)》의 편집장이 되었다.

제임스가 윌리엄스를 도와 ‘민중민족운동’에 참여한 선택은 자신의 정치 신념을 위배한 것처럼 보였다. 1950년 초부터 그가 일관되게 사회주의 체제와 좌파 정당의 관료주의와 전위주의를 비판하면서 대중의 ‘자기 조직화’를 강조했다기 때문이다. 〈민중민족운동〉은 이러한 대중의 자기 조직화라고 보기 힘들었다. 게다가 이 조직은 이념적으로 민족주의 정당이었지 마르크스주의적 계급정당이 아니었다. 지도자였던 윌리엄스와 당 주류를 이루던 세력은 자유주의적인 민족주의자들이었다.³⁾ 이들은 압도적으로 흑인 중간계급 출신이었고 혁명가인 제임스가 오랫동안 경멸해왔던 바로 식민지 지식인과 관료계급이거나, 곧 그렇게 될 사람들이었다. 이들에게 식민지 독립이란 식민지 고위관직을 자기 계급의 구성원이 차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따라서

3) Walton Look Lai, “C. L. R. James and Trinidadian Nationalism,” Paget Henry & Paul Buhle, eds., *C. L. R. James's Caribbean* 2nd.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6), p. 176.

민족주의와 엘리트주의로 회귀하는 듯 보인 제임스의 선택은 자신의 동료들에게 대중의 자율성과 ‘자기활동’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배반한 것이자, 마르크스주의적 원칙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였다.⁴⁾

이와 관련하여 제임스 연구자들 또한 그의 정치적 선택이 미국 체류 동안에 발전시켜왔던 대중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전략과는 달랐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와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쪽에는 제임스가 민족주의로 완전히 경도되었다는 부정적 평가가 존재했다. 허슨(Baruch Hirson)은 제임스가 마르크스주의와 민족주의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적 긴장을 사상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고, 비서구 사회의 정치 전략으로 민족주의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⁵⁾ 이러한 선택은 자신의 마르크스주의적인 신념과 계급정치의 포기를 명백히 의미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는 제임스가 완전히 새로운 정치 전략을 발전시키게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로젠가르텐(Frank Rosengarten)에 따르면, 제임스가 동유럽의 반소 봉기들과 비서구 지역의 반식민주의 운동을 경험하면서 그람시적인 ‘민족민중 전략’을 발전시켰다.⁶⁾ 제임스의 정치적 선택은 인종과 계급들의 창조적인 연대를 기반으로 하여 카리브 제도 전체를 포괄하는 연방 국가를 형성하려고 했던 전략이었다는 것이다.

제임스가 그람시적인 새로운 정치 전략을 발전시켰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가 민족주의 입장과 원칙적으로 타협하지 않았던 것은 확실했다. 제임스는 민족주의와 타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자율성과 ‘자기 활동’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신념 또한 포기하지 않았다. 제임스의 선택에 담겨있는 정치적 일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4) 이러한 견해를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은 트리니다드 체류 시기에 제임스와 동행했던 그의 세 번째 부인, 셀마 제임스(Selma James)였다. 그녀는 제임스가 혁명적 사회주의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평가했고, 그에 대한 신뢰를 크게 상실했다. Frank Rosengarten, *Urbane Revolutionary: C. L. R. James and the struggle for a New Society* (Jackson: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2008), p. 123.

5) Baruch Hirson, “Communism and Socialism in Africa: The Misdirection of C. L. R. James,” *Searchlight South Africa*, 1-4(1990), pp. 64-73.

6) Frank Rosengarten, *Urbane Revolutionary*, pp. 117-122.

체류 시절 그가 국가자본주의론에 입각하여 결론내린 제국주의 정책과 식민지 상황에 대한 전망을 고려해야 한다. 제임스가 이후 카리브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반식민주의 투쟁을 위해서 추구했던 정치 전략은 암묵적으로 이러한 분석의 연장선에 있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제임스의 논의는 단편적으로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대다수 제임스 연구자들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누락 때문에 제임스 연구자들은 그가 트리니다드에서 추구했던 정치 전략을 갑작스러운 입장 전환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입장 전환을 기존 신념의 포기나 새로운 전략의 발전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임스는 1950년대 초까지 스스로가 발전시켰던 제국주의와 제3 세계의 상황에 대한 분석에 기초해서, 영국령 카리브의 반식민주의 투쟁을 활성화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민중민족운동〉의 참여를 선택한 것이었다.

II. 식민지 저항운동과 대중정당의 필요성

제임스가 자신의 독자적 분석을 발전시키게 된 것은 자신이 한 때 지지했던 러시아 혁명가 트로츠키(Leon Trotsky)의 2차세계 대전 이후 상황에 대한 예측 실패와 관련이 있다. 트로츠키에 따르면 식민지 국가에서는 민족 자본가계급이 제국주의 세력과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노동 계급의 힘을 통해서만 민족 해방과 사회 개혁이 성취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과 달리 식민지 해방은 중국의 경우가 잘 보여주듯, 노동자계급이 아니라 공산당이 이끄는 농민계급에 의해서 쟁취되었다. 이러한 식민지 해방의 과정은 쿠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소수 지식인집단이 이끈 농민 계급이 독재 체제를 몰아내고 해방을 쟁취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임스는 트로츠키의 예측 실패가 무엇 때문인지 조사해야만 했다. 그리고 반식민주의 투쟁에서 노동자계급뿐만 아니라 농민계급의 지닌 정치적 자율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분석적 결론으로 얻게 되었다.

제임스에 따르면, 트로츠키의 예측 실패는 전후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변화 때문이었다. 트로츠키의 예측은 다음 세 가지 가정에 기초해

있었다.⁷⁾ 첫째 유럽 제국주의 국가의 독점자본은 식민지 국가들에 자본을 수출하고 이들 나라를 산업화 시킨다. 둘째 식민지 산업화 과정에서 토착 자본가계급은 제국주의 권력이나 대외 자본과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셋째 식민지 내 산업화된 지역에서 자본가에 대항해서 일어나는 노동자 투쟁은 노동자계급이 민족해방 투쟁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만들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농업 개혁을 통해서 농민계급을 정치적으로 이끌고, 도시의 중간 계급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제임스는 트로츠키의 분석과 예측이 전후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근본적 변화에 따라 더 이상 타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분석했다.⁸⁾ 제임스에 따르면, 유럽 독점자본주의는 더 이상 자본을 식민지로 수출하지 않았다. 오히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미국 자본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으며, 자국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식민지 나라들에게 제공하는 국가 대부는 이들 나라를 산업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군사 기지를 유지하기 위한 제한된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식민지 나라들의 산업화는 트로츠키의 예측과는 달리 매우 느린 속도로 이루어졌으며, 식민지 사회에서 농민반란이 지배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중간계급 지식인들이 이러한 농민반란을 이끌게 되었고, 이러한 반란을 통해서 식민지 해방이 성취 되었다고 분석했다.

제임스는 자신의 초기 분석에서 중국의 공산화와 중국공산당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⁹⁾ 그는 중국 공산당이 소련의 스탈린주의 공산당이나 서구 노동조합을 장악한 관료계급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 중국공산당은 노동계급이나 농민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중간계급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인식했다. 제임스는 중국공산당의 주축을 이루는 식민지 중간계급이 자본가계급은 아니지만, 식민지 해방과 함께 곧 관료 지배 계급으로 변신할 것이며, 자신의 나라를 전체주의 사회로 이끌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주의 체제에 저항하는 대중의

7) C. L. R. James, (written in Collaboration with Raya Dunayevskaya and Grace Lee) *State Capitalism and World Revolution*(1950) 3rd. (Chicago: Charles H. Kerr Publishing Company, 1986), p. 71.

8) *Ibid.*, p. 72.

9) *Ibid.*, p. 73.

자기활동, “진정한 대중 혁명(genuine mass revolution)”이 중국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¹⁰⁾ 이러한 예상은 매우 선견지명이 있는 분석이었다. 실제로 식민지 중간 계급 지식인들이 이끄는 대다수 식민지 해방운동은 그와 같은 국가 관료화와 독재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제임스는 자신의 이러한 예측을 발전시키고 정교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정은 역설적으로 노동계급 중심주의와 서구 중심주의로부터 단절하려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트로츠키의 예측 실패와 함께 제임스의 식민지 해방운동에 대한 수정된 분석은 마르크스주의적인 시각에서 어떤 논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다. 마르크스주의의 시각에서 농민계급은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 농민계급은 후진적이고 원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한 계급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 도시계급 가운데 한 계급, 즉 자본가계급이나 노동자계급이 이들을 정치적으로 이끌어야만 했다.¹¹⁾ 그러나 제임스의 수정된 분석에 따르자면, 자본가계급이나 노동자계급 없이도, (식민지 중간계급 지식인이 이끄는) 농민계급에 의해서 식민지 해방은 성취될 수 있었다. 농민계급도 식민지 해방의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¹²⁾ “이러한 조건 아래서, 농민 반란을 단순히 프롤레타리아트 투쟁의 잔여물, 이들 반란을 프롤레타리아트로부터 새로운 자극을 받은 후에야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정통 트로츠키주의의 이론은 시대착오적인

10) C. L. R. James & Grace C. Lee, *Facing Reality* (1958) (Chicago: Charles H. Kerr Publishing Company, 2006), p. 83.

11) Hal Draper, *Karl Marx's Theory of Revolution: The Politics of Social Classes*, Vol 2. (New York & London: Monthly Review Press, 1978), pp. 348-351.

12) 정통 트로츠키주의자인 뢰비(Michael Löwy)는 이러한 상황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노동 계급을 이념적으로 대표하면서 농민 계급을 지도했다고 주장한다. “1930년대부터 당원의 압도적 다수가 농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은 노동자 계급에 대한 정치적 충성과 사회주의 변혁의 강령을 유지하였다. 농촌을 통한 오랜 ‘우회’에도 불구하고, 중국공산당은 중국 프롤레타리아의 유기적 정당으로서 본래의 성격을 유지했다...농민은 어느 만큼은 중국 공산당이 프롤레타리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용했던 도구였다...중국 공산당이(상당 정도의 관료적 경향에도 불구하고)-역사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노동계급의 당이었던 만큼, 혁명 과정의 정치적 지도력은 ‘프롤레타리아적’이었다고 규정해야 한다.” Michael Löwy, *The Politics of Combined and Uneven Development* (London: Verso, 1981), pp. 128-129.

것이 되었다.”¹³⁾

만약 농민계급이 식민지 해방의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다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이나 급진적인 지식인들이 식민지에서 노동계급이 성장하기를 기다릴 이유는 없었다. 오히려 농민계급을 조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식민지 독립과 민족 해방의 전략이 될 수 있었다. 이것은 카스트로와 게바라가 쿠바에서 실천했던 전략이었다. 중국뿐만 아니라 가나, 인도 그리고 쿠바까지 이러한 식민지 해방 투쟁을 통해서 제국주의로부터 (신)식민지의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임스는 지식인과 농민 주도의 식민지 해방 전략이 관료 지배의 국가 자본주의체제를 낳을 뿐이라는 비판을 넘어서 서구 혁명과는 다른, 즉 노동자계급이 아니라 농민계급에 의존하지만 ‘아래로부터의 광범위한 참여’에 기초한 식민지 해방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제임스는 이점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제 3세계의 혁명과 관련하여) 정치 노선의 문제로서...그 문제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당신은 한 사회를 고려하면서, 지지하거나 반대한다고 말한다. 좋거나 싫다고 말한다. 훌륭하거나 나쁘다고 말한다. 혁명적이거나 반혁명적이라고 말한다. 사회주의적이거나 자본주의적 또는 국가자본주의적이거나 그런 종류의 어떤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분석의 과정에서 잃게 되는 것은 모든 분석이 역동적이고 살아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혁명적 시기라는 사실에 대한 통찰력을 잃고 있다...

이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국가들(nations)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근본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는 것은...산업화된 국가들을 포함하는 사회주의 세계가 존재함 없이 궁극적으로 이들 국가들의 미래가 가능한지 여부가 아니다. 이들 국가들이 살아가고 있는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여부이다. 즉 이들 나라의 민중이 이들 나라의 변형에 참여하고 있는가, 또는 어떤 종류의 방향이나 운동을 유지하는 데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여부이다. 다른 말로, 쿠바에서 경험하고

13)C. L. R. James, *State Capitalism and World Revolution*(1950), p. 72.

있다고 믿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아래로부터의 광범위한 참여(broad participation from below)를 경험하고 있는가?”¹⁴⁾

그리고 이러한 식민지해방 전략은 농민을 ‘아래로부터’ 조직하는 대중정당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정당은...저발전된 (underdeveloped) 나라들에서 여전히 타당성을 가진다. 말하자면, 산업이 아직 지배적이지 않고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지배적이지 않는 곳에서 정당은 여전히 타당성을 지닌다. 이들 지역에서 정당이 지니는 지속적인 타당성의 한 증거는 이들 지역에서 정당들이 획득하고 있는 승리이다.”¹⁵⁾ 제임스는 농민계급이 노동자계급의 지도 없이도 반식민주의 투쟁을 전개할 수 있지만, 이들이 지닌 분산적이고 파편화된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중정당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결론을 그는 간디(Mohandas K. Gandhi)의 <국민회의당(Congress Party)> 과 응크루마(Kwame Nkrumah)의 <인민회의당(Convention People’s Party)> 이 각각 인도와 가나의 반식민주의 투쟁을 주도하는 과정을 검토하면서 이끌어내게 되었다.

제임스가 참여 민주적 대중정당에 생각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은 1957년에 일어난 영국령 가나(Ghana)의 독립이었다. 가나 독립을 이끈 것은 응크루마와 그가 이끄는 <인민회의당> 이었다.¹⁶⁾ 응크루마는 제임스로부터 젊은 시절부터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은 범아프리카주의 혁명가였다. 따라서 응크루마는 가나가 독립한 해, 자신의 나라로 제임스를 초대하였다. 제임스는 약 10일 간 가나의 각지를 돌아다니며 독립을 주도했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었고, 여기서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다. 그는 가나에서 돌아온 직후 동료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나는 응크루마의 책을 분석할 것이고, 식민지 혁명에 대한 『블랙

14) C. L. R. James, Martin Glaberman ed., “Theory and Practice(1969),” *Marxism For Our Times: C. L. R. James on Revolutionary Organization* (Jackson: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1999), p. 189.

15) C. L. R. James, *Modern Politics*(1960) (Detroit, Michigan: Be Wick/ed, 1973), p. 92.

16) C. L. R. James, “The People of the Gold Coast(1960),” Anna Grimshaw ed., *C. L. R. James Reader*, (Oxford UK& Cambridge USA: Blackwell, 1992), pp. 347-353.

자코뱅』과 레닌주의 이론의 이론적 전제가 되는 것과 완전히 결별하거나, 이를 질적으로 새롭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하나의 과정으로서) 아프리카 혁명은 더 이상 서구 유럽의 혁명에 종속된 것이나 그 보완물로서 간주할 수 없습니다.”¹⁷⁾

제임스는 “가나 혁명(Ghana Revolution)”에서 ‘자기 조직화’의 식민지적 형태, 또는 달리 말해서 비서구적인 형태를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제임스는 1956년에 등장한 헝가리의 ‘노동자 평의회’를 서구 유럽의 대중이 발전시킬 수 있었던 ‘자기 조직화’의 최고 형태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노동자평의회’라는 ‘자기조직화’의 형태는 노동자계급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제임스는 농민계급이 다수를 이루는 식민지 대중의 ‘자기 조직화’는 이와는 다른 형태를 취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와 같은 형태는 제임스가 가나의 〈인민회의당〉이 구현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한 참여 민주적 대중정당이였다. 이러한 조직 형태는 유럽 공산당이 기초한 레닌주의 전위정당과는 다른 형태의 정당이었다. 제임스는 〈인민회의당〉을 다음과 같이 극찬했다. “유럽 제국주의에 직접적으로 종속된 이후, 열대 아프리카가 지금까지 수행해온 가운데 두드러진 정치적 성취는 〈인민회의당〉의 조직화였다.”¹⁸⁾

제임스에게 참여 민주적 대중정당을 통한 식민지의 해방은 서구 유럽의 노동자 평의회와 함께 자본주의 체제 내부로부터 은밀히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의 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었다. 제임스에 따르면 〈인민회의당〉은 당원이 최고 많았을 때 가나 전체 인구의 20%인 약 백만 명에 달했고, 이후 감소했을 때도 오십만 명 정도였던 대중정당이였다. 〈인민회의당〉은 이러한 조직적 기반으로 1951년 자치의회 선거에서 절대적인 승리를 거두고, 영국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추진할 수 있었다. 제임스는 〈인민회의당〉이 가졌던 거대한 대중 동원력과 조직력을 식민지 대중, 특히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 계급의 ‘자기 활동’ 또는 ‘자기

17)C. L. R. James, “Letters on Politics: 20 March 1957,” *C. L. R. James Reader*, p. 269.

18)C. L. R. James & Grace C. Lee, *Facing Reality* (1958), p. 82.

조직화'의 한 형태라고 (잘못) 생각했다. “서구에서 이제 시대착오적이 된 오래된 정치 형태를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방식에서 사용하는 이들 주민들의 태도와 정신에서 저발전 나라들은 낡은 사회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의 일부분이 되었다.”¹⁹⁾

제임스는 1957년 가나의 독립으로 〈인민회의당〉이 통치정당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권력을 잡은 이후 체제와 정당이 “부패”할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권력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혁명이 영구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⁰⁾ 가나가 다른 식민지 나라들의 해방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뿐만 아니라 〈인민회의당〉이 지닌 참여 민주적 성격이 독립이후 새롭게 등장한 국가 기구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인민회의당〉과 가나 정부는 여전히 식민 상태에 놓여 있는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아프리카의 해방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만 했다. 제임스는 가나 경제의 후진성 때문에 국가가 경제를 조직하는 데 주도권을 쥌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주도권은 위로부터 경제를 계획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도입하는 것이 되어야 했다. 제임스는 가나의 농업과 산업 생산이 20세기 서구에서 발전된 민주적이고 협동적인 형태와 접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덴마크나 벨기에의 농업 협동조합 (Farming Cooperatives), 이스라엘의 협동농장(Collectives), 영국의 직장 위원회(Shop Stewards) 등과 같은 조직 원리들이 도입되어야 했다. 다른 한편으로 제임스는 아프리카의 전통과 역사가 새롭게 등장한 독립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가능성도 고려했다. 그래서 아프리카 부족 전통의 민주적 본능과 실천을 새로운 국가 권력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새로운 국가권력의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은 영국 정부가 식민 지배를 위해서 왜곡한 ‘추장제’가 아니었다. 왜곡된 추장제는 새의 깃털과 양산으로 치장되고, 대좌에 앉아 있는 작은 폭군에 불과했다. 복원되어야 할 것은 부족장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쫓아내는 부족들의 민주적 전통이어야 했다. 제임스는 〈인민회의당〉과 가나 정부가 이러한 민주적 정책과 전통을

19) *Ibid.*

20) C. L. R. James, “Letters on Politics: 20 March 1957,” p. 270.

추구할 때만이 근대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갈 것이라고 주장했다.²¹⁾

그러나 〈인민회의당〉과 가나정부는 제임스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듯 참여 민주적인 대중정당이나 혁명 정부가 아니었다.²²⁾ 그것은 점차 개인숭배와 일당 독재, 그리고 국가자본주의가 결합된 전형적인 전체주의 국가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인민회의당〉은 창립 때부터 당 대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응크루마가 개인적으로 임명하는 조직 구조를 갖고 있었다. 게다가 〈인민회의당〉의 거대한 대중 동원력도 아래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인위적으로 조직된 것이었다. 이러한 당 조직과 대중동원의 비민주적인 형태는 응크루마가 1961년에 당의 종신 서기장이 되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이 시기에 그는 당 기관과 입법부를 포함한 국가 기구 전체를 완전히 장악했다. 또한 응크루마는 야당 의원들을 수시로 체포, 투옥했고 1963년에는 야당 자체를 사실상 해산시켰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응크루마에 대한 개인숭배도 제도화되었다. 모든 언론기관이 그를 언급할 때 ‘오사지에포(Osagyefo, 구세주라는 의미)’라는 칭호를 사용해야만 했다. 제임스는 이러한 모든 사실이 분명하게 알려지게 된 1963년 응크루마와 정치적으로 완전히 결별하게 되었다.²³⁾

III. 참여 민주적 대중정당과 서인도연방의 건설

1958년에 제임스가 트리니다드의 민중민족운동에 참여했을 때, 그는

21) *Ibid.*

22) 니시가와, 『제 3세계의 발자취: 파키스탄, 가나, 이집트, 쿠바』(서울: 거듭, 1983) 46-48쪽. 응크루마의 아프리카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Jitendra Mohan, "Varieties of African Socialism," Jeremy Jennings ed., *Socialism: Critical Concepts in Political Science* (London: Routledge, 2003), pp. 290-291, 299-301, 320-322. 아프리카 사회주의는 민족주의의 아프리카적인 변종이라는 주장은 Baruch Hirson, "Communism and Socialism in Africa," pp. 64-73. 참조.

23) C. L. R. James, *Nkrumah and The Ghana Revolution* (London: Allison & Busby, 1977), pp. 181-182, C. L. R. James, "The Rise and Fall of Nkrumah," *C. L. R. James Reader*, pp. 358-361.

가나의 〈인민회의당〉과 유사한 참여 민주적 대중정당을 조직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중국·인도·가나·쿠바에 이르기까지 제 3 세계에서 식민지 대중의 ‘자기 조직화’는 민족주의적인 형태를 취했고, 대중정당에 기초해서 식민지 해방을 이룩했거나 투쟁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임스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반인종주의 투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서 발전시켰던 ‘자기 조직화’ 전략을 식민지 문제에 적용하게 되었다. 자기 조직화 전략이란 대중의 자율성과 투쟁성을 신뢰하면서 사회주의 정당과 노동자운동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대중 운동 조직의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민족 국가의 최종적 실패 (final failure of the national state)”를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식민지 민중의 ‘자기조직화’가 취하는 민족주의적인 형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지지했다.²⁴⁾ 그리고 이러한 민족주의적 반식민주의 투쟁을 참여 민주적 형태로 조직화하고자 추구했다. 그래서 제임스는 자신이 (잘못) 상상했던 가나의 〈인민회의당〉 처럼, 트리니다드의 민중민족운동을 참여 민주적 대중정당으로 만들고자 했다. 이러한 대중정당은 식민지 민중의 ‘자기 활동’과 ‘자기 조직화’를 더욱 더 고무하고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었다.

“서인도 대중의 정치적 분위기는 매우 고양된 상태이다...그들은 자신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심오한 변화를 자각하고 있고, 새로운 토대를 찾고 있다...대중 민주주의 정당은 새로운 체제의 전위로서, 공동체 내에서 일하는 정치 조직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사회 조직이라고 스스로를 간주해야 한다...만약 우리가 새로운 개념과 조직 등을 생산하지 못한다면, 낡은 것이 여전히 혼란과 무질서를 창출하면서 거짓된 형태에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종류의 대중정당은 민중의 발전하고 있는 의식이 구체화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래서 민중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욕망이 가지는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 스스로 의식할 수 있게 만든다.”²⁵⁾

24)C. L. R. James, *Modern Politics*(1960), p. 84.

25)C. L. R. James, *Party Politics In The West Indies* (Port of Spain, 1962).

따라서 제임스는 〈민중민족운동〉의 조직이 지닌 엘리트 정당적 성격을 극복하고 대중의 ‘자기 활동’을 고무하는 방향으로 민주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엘리트 정당은 식민지 입법위원의 후보자 지명 및 정당 정책을 소수의 엘리트나 실력자가 결정하는 특성을 지녔다. 그래서 제임스는 일반당원들이 당 주요 인사를 통제할 수 있게 하여 당이 사회적으로 더욱더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당내 민주주의의 확대를 강조했다. 또한 강령을 가진 정치 정당으로서 자신의 선출직 입법위원을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임스는 당의 정치적 지도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영향력 확대만을 골몰하는 당의 선출직 입법위원들을 비판했다. 이들은 정당의 정책이나 이념을 실천하기보다는 선거 승리를 위한 캠페인에만 주력하기 때문에 당은 사회적 기반을 상실한 엘리트 중심의 명사 정당으로 전락하게 될 위험이 있었다. 제임스는 당기관지인 《네이션》이 입법위원이나 당·정부 관료들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들의 정책이나 행동을 공공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²⁶⁾

제임스가 1958년부터 약 2년 동안 〈민중민족운동〉의 기관지인 《네이션》의 편집장으로 했던 활동은 이러한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제임스는 정치정당이 참여 민주적으로 해당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체계화되고 잘 조직된 자체 당 기관지, 즉 당의 이념과 정책을 담은 대중매체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윌리엄스에게 《네이션》이 일주일에 두 번은 출판되어야 하며 안정된 정기 발행을 위해서 당이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제임스는 자신과 《네이션》의 당내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편집장은 당 중앙기구의 성원이 될 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²⁷⁾ 편집장이 당의 입법위원이나 당의 엘리트에 도전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였다.

26) C. L. R. James, "Without Malice," *Nation*, 17 April 1959.

27) C. L. R. James, *Party Politics In The West Indies* (Port of Spain, 1962), p. 41.

그러나 제임스가 추구했던 당 기관지를 통한 당내 민주화 전략은 처음부터 일정한 제약이 존재했다. 응크루마는 독재의 길로 결국 나아갔지만 스스로를 마르크스주의자이자라고 자임했고 가나 국가가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었다. 그러나 윌리엄스는 결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으며 당시 영국 노동당의 온건한 사회 민주주의적 정책조차도 좋아하지 않았다. 윌리엄스와 〈민중민족운동〉의 당내 주류는 중간계급 출신의 자유주의적인 민족주의자였다. 당내 주류는 제임스를 당권 투쟁의 경쟁 상대로 간주하고 있었고 제임스가 지닌 마르크스주의 혁명가로서의 과거 행적에 불신을 갖고 있었다.²⁸⁾ 이들은 제임스가 당을 장악해서 공산주의적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우려를 표했다. 당 내에서는 제임스가 공산주의자들의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게다가 제임스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 정책의 결정기구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었다. 그의 당내 위치는 전적으로 윌리엄스의 보증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제임스의 말과 행동에는 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윌리엄스에게 당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 리더십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했고, 자신의 마르크스주의적인 정치성향마저 억제해야만 했다.²⁹⁾ 제임스는 민족주의적 자유주의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최대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참여 민주적 대중정당의 건설이라는 목표와 함께 제임스가 탈식민화의 과제로서 중요하게 관심을 가졌던 것은 ‘서인도연방(West Indies Federation)’의 건설이었다. 1958년부터 시작된 탈식민화의 과정에서 영국 식민당국은 자메이카·트리니다드·바베이도스·소앤티리스 제도의 작은 섬 등을 모아서 서인도연방을 만들자고 제안했다.³⁰⁾ 추진 목적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섬들을 합쳐서 효율적이고 안정된 규모를

28) James Millette, “C. L. R. James and the Politics of Trinidad and Tobago, 1938-1970,” Selwyn R. Cudjoe and William E. Cain eds., *C. L. R. James: His Intellectual Legacies*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95), p. 333.

29) Selwyn Ryan *Eric Williams, The Myth and The Man*, p. 360.

30) Eric Williams, *From Columbus to Castro: The History of the Caribbean* (New York: Vintage Books, 1984), pp. 474-475; Olwyn M. Blouet, 신정환·문남권·하상섭 옮김, 『현대 카리브의 삶과 문화』 (서울: 한국외국어대 출판부, 2008), pp. 66-67쪽.

가진 국가로 독립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있었다. 이에 따라 독립에 앞서 서인도를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효율적인 단위로 구성할 목적에서 연방의 수도가 트리니다드의 수도, 포트오브스페인에 설치되고 1958년 연방의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서인도연방의 장래는 밝지 않았다. 한편으로 서인도 주민들은 연방을 추진하는 영국 식민당국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었다. 식민당국이 서인도연방을 서인도 식민지를 독립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손쉽게 식민지를 관리·감독하려는 목적에서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서인도를 구성하는 영국령 섬들은 경제적 잠재력이 매우 상이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분리되어 지방색이 강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지역주의가 득세하고 있었다.

제임스는 경제적 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서도 서인도 연방을 지지했다. 당시의 진보적 입장을 가진 대다수처럼, 제임스도 서인도연방이라는 큰 규모에서 경제가 계획될 때만이 진정한 탈식민적인 국가가 건설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서인도의 섬들은 경제적으로 지나치게 영국에 의존해 있었고, 상호 간의 유대가 부족한 상태였다.³¹⁾ 따라서 연방 형성은 서인도 지역의 경제를 상호 밀접하게 만들고 영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극복할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제임스는 서인도연방이 정치적 목적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전후 카리브 지역에서 영국은 쇠퇴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권력 이전은 카리브의 탈식민 과정을 왜곡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따라서 영국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미소 냉전을 제국주의 세력 사이의 갈등으로 간주했던 제임스는 쿠바와 같이 소련에 의지하는 해결책을 거부했다. 쿠바사태에서 알 수 있듯 소련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제국주의 국가에 불과했다. 제임스는 암묵적으로 반동회의에서 선언된 비동맹 중립외교를 지향했다. 제임스는 이러한 목적에서 서인도연방이 미국의 정치적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정치적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31) C. L. R. James, "Parties, Politics and Economics," *Spheres of Existence*, p. 155.

당시 미국과의 정치적 긴장관계가 트리니다드의 차과라마스(Chaguaramas)에 있는 미 해군 기지 문제를 통해서 형성되고 있었다. 미국은 1940년 9월 구축함 50대를 보내어 영국을 도왔고 담페로 버뮤다·자메이카·안티구아·가이아나·트리니다드 등지에서 해군 기지를 확보했다.³²⁾ 차과라마스는 이때 건설된 미 해군기지 가운데 하나였다. 윌리엄스와 〈민중민족운동〉은 1957년부터 영국 정부가 양도한 차과라마스를 미국이 다시 반환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윌리엄스는 미국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수 세기 동안 서인도제도가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군사기지로 사용되었고 전쟁을 일삼는 이들의 군사적 약탈품으로 취급되어왔다고 지적하면서 이제 이러한 역사의 종지부를 찍을 시기가 왔다고 주장했다.³³⁾ 그는 영국이 미국과 기지반환 협상을 계속 거부할 경우, 트리니다드가 서인도연방뿐만 아니라 영연방에서도 탈퇴하겠다고 대중집회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그는 트리니다드의 독립정부가 들어서면 식민지 체제 아래에서 체결된 조약들을 무효화시키고 미국과 재협상을 벌이겠다고 공언했다. 제임스는 윌리엄스의 이러한 정치적 선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제임스는 미 해군 기지 반환 투쟁을 아이티 혁명의 역사와 연결시키며 서인도 국민의 탈식민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임스는 윌리엄스가 트리니다드 민중의 열망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뛰어난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그는 현실 정치인이었다. 윌리엄스가 기지반환 운동을 주도했던 것은 미 정부가 영국 식민당국이나 서인도 연방정부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정치적 파트너로 간주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술책이었다. 윌리엄스가 미국의 정치적 파트너가 된다는 것은 트리니다드에서 그의 정치적 위상과 대표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1960년 5월에 윌리엄스는 자신이 원했던 것, 즉 미 정부가 자신과 직접 협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목적했던 성과를 얻게 되자 윌리엄스는 공개적으로 ‘독립을 위한 전쟁’에서 승리했고 트리니다드는 서방 진영의

32)Eric Williams, *From Columbus to Castro*, pp. 426-427.

33)C. L. R. James, “From Toussaint L’Ouverture to Fidel Castro(1962),” *C. L. R. James Reader*, pp. 310-311.

일원으로서 영연방과의 유대를 포기하지 않고 아메리카 지역의 국가 구성원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냉전 갈등에서 미국(과 영국)의 편에 서겠다는 명백한 선언이었다. 윌리엄스의 연설을 듣고 당시 미국 관리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 “연설은 윌리엄스와 제임스의 결별을 상징했다...연설 이후 우리는 그(윌리엄스)와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³⁴⁾

제임스는 윌리엄스의 정치적 행보에 크게 실망했다. 그는 1960년 3월과 7월 두 번에 걸쳐서 윌리엄스에게 《네이션》의 편집장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내가 명확한 정치적 원칙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잊었거나 알지 못했던 것처럼 보이네. 나는 나 자신을 〈민중민족운동〉에 완전히 종속시켜 왔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네.”³⁵⁾ 사실상 윌리엄스는 이미 제임스를 자신의 정치적 권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하고 있었다. 제임스가 가졌던 국제 혁명가로서의 명성은 이제 정치적 부담이 되었으며, 또한 그가 정력적으로 옹호했던 참여 민주적 대중정당은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침식할 수 있었다. 미국의 압력과 윌리엄스의 목인을 배경으로, 당내 우파는 제임스를 공격할 구실을 찾았다. 이들은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네이션》의 경영 상태를 조사한 다음 제임스가 재정적으로 잘못 운영했다고 공격했다. 제임스는 재정 남용 혐의에 답변하도록 당 규율위원회에 소환되었다.³⁶⁾ 그러나 제임스는 당 규율위원회의 소환을 거부하고, 1960년 10월에 당을 떠났다. 윌리엄스와 당 주류는 이를 빌미로 제임스가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당에서 추방당했다고 선언했다.

당을 떠난 후 런던으로 돌아 온 이후 제임스는 자신이 추구했던 정책이 하나하나 좌절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다. 참여 민주적으로 쇄신하고자 했던 〈민중민족운동〉은 더욱더 엘리트 정당의 성격을 강화하였다. 그가 탈식민적 국가 수립의 정치적·경제적 토대로서 간주했던

34) Selwyn Ryan *Eric Williams*, p. 361.

35) Kent Worcester, *C. L. R. James: A Political Biography*, p. 159.

36) Walton Look Lai, “C. L. R. James and Trinidadian Nationalism,” pp. 193-195.

서인도연방은 1962년에 붕괴하게 되었다. 연방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자메이카에서 1961년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서인도연방 탈퇴 안이 54% 대 46%의 투표로 가결되자, 곧 트리니다드도 연방에서 탈퇴했다. 1962년 5월 영국의회는 서인도 연방을 공식적으로 해체했고, 같은 해 자메이카와 트리니다드는 개별적으로 독립했다. 제임스는 이러한 서인도의 상황 전개에 분노했고, 연방이 해체된 직접적 원인을 트리니다드의 윌리엄스와 자메이카의 맨리(Norman Manley) 같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돌렸다. 제임스는 특히 윌리엄스가 지금까지 성취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뒤돌아서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만약 서인도의 정치가들이 서인도 민중에게 경제 발전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전망이라도 제출했다면,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것의 중심에 민중을 두었다면, 맨리는 국민투표와 총선거에서 승리했을 것이다. 만약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수상이 차과라마스를 팔아버리지 않았다면, 만약 그가 그의 캠페인이 공격적으로 공표했던 목표를 유지했다면, 그의 목소리는 서인도에서 연방을 위한 가장 강력한 호소가 되었을 것이다. 모든 섬의 많은 사람들은 매우 힘 있는 미국인들에 대항해서 싸우고 승리한 서인도 정치가들을 보고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을 것이다.”

IV. 식민지 중간계급과 신식민주의

제임스는 탈식민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프리카와 카리브 정치 지도자들의 무능하고 배반적인 행동을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보지 않았고, 이들이 기반하고 있던 식민지 중간계급의 허약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서인도의 흑인 중간계급은 인종주의와 역사적 조건 때문에 오랫동안 식민지 사회의 중심적 역할로부터 배제되어 있었다. 이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지만 거대 규모의 산업이나 농업을 경영해 볼 기회를 갖지 못했고 정치 정당이나 정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본 적도 없었다. “생산에 대한 지식, 정치 투쟁의 지식, 민주적 전통에

대한 지식이 그들에게는 전무하다... 그 계급은 경제생활의 중심으로부터 배제되어왔고 여전히 그러하다. 그들은 어떤 실제적인 정치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하며, 어떤 정치적 전통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 흑인 중간계급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정치적·경제적 특성에 대한 잘 알고 있지 못했으며, 식민지 해방에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비전도 없었다. 이들은 자신의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이익 추구에만 골몰했다.³⁷⁾

“서인도인의 특성은 존재하는가? 서인도 국민은 존재하는가? 서인도 국민이란 무엇인가? 이들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이들은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 서인도 중간계급은 이러한 질문들로부터 떨어져 있다. 되도록이면 정부의 후원 아래 정부의 비용으로 일자리·자동차·냉장고·해외여행 등등 이것들이 그들이 가진 관심의 시작이자 끝이다. 그들 스스로가 어떤 해외 세력과 어떤 사회 계급과, 어떤 사회사상과 동맹하거나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인가? 를 알지 못한다...이러한 무지는 이들의 서인도 민족주의가 가진 상상력의 극단적 한계인 것처럼 보인다.”³⁸⁾

제임스에게 흑인 중간계급의 허약성과 상상력의 빈곤은 탈식민 이후에도 식민지 지배문화가 잔존하게 되는 이유였다. “영국의 매너, 관습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 절차에 정력적으로 순응하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 그리고

37)C. L. R. James, “The West Indian Middle Class(1961),” C. L. R. James, Paul Buhle ed., *Spheres of Existence: Selected Writings* (Westport, Connecticut: Lawrence Hill&Co., 1980), pp. 131-134. 제임스의 탈식민 사회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동시대의 파농(Frantz Fanon)이 했던 분석과 매우 유사한 것이었다. 파농은 1961년에 탈식민사회의 중간계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식민지 체제 말기에 권력을 인수 받은 중간 계급은 미성숙한 부르주아지이다. 실제적으로 아무런 경제력도 없고 그들이 추종하려는 식민지 본국의 부르주아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민족부르주아지는 깊은 나르시시즘에 빠져 스스로 본국 부르주아지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쉽게 확신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독립은 중간 계급을 극도로 궁지로 몰아넣고 그들 내부에 재앙과 같은 반발을 유발시키고 그들은 이전 식민지 본국의 도움을 안타깝게 요청하게 된다...엄밀히 말하자면 저개발국의 진정한 중산 계급의 역사적 사명은 부르주아지로서의 자신과 자본주의의 도구로서의 자신의 성격을 부정하고 자신을 기꺼이 민중이라는 혁명적 자본의 노예로 만드는 데 있는 것이다.” Frantz Fanon, *Les Damnés de la terre*(1961), 박종철 옮김,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 (서울: 광민사, 1979), 111-112쪽 참조.

38)C. L. R. James, “The West Indian Middle Class(1961),” pp. 135-136.

그것에 대한 수용은 그들이 항상 해왔던 것이다.” 제임스에 따르면, 이러한 태도는 식민지 교육의 혜택을 통해서 주입된 것으로, 이들 흑인 중간 계급이 자신의 계급적인 허약성을 보충하는, 다르게 말해서 이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몇 세기 동안 그들은 민중과 분리되고 구별되는 지위·교육·관습·매너를 가지는 것을 자신들의 흔들림 없는 원칙으로 가졌다. 서인도에서 교육의 역할은 강력한 영향을 가졌다.”³⁹⁾ 제임스는 흑인 중간계급의 종속된 정체성이 독립 이후 새로운 정치적 지배층으로서 이들이 다시금 식민 지배자들과 협력 관계를 맺게 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흑인 중간계급의 종속적 협력 관계를 타파하기 위해서 식민지 민중의 자기 조직화와 민주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이를 새로운 경로 위에 둘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이를 방해할 모든 사람들에 대항해서 대중을 동원하는 것이다.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심지어 공산주의자임을 자임하는 사람들조차 그와 같은 방향을 감히 취하지 못한다... (이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모든 주제는 특별히 위험하다. 주민 대중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는지 모르기 때문이다...거대 규모의 경제 발전(의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도 민중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잠재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감수성 있는 대중을 부여했다...몇 세기 동안 고역을 감당해왔던 서인도의 보통 사람들은 매우 넉더리를 낸다. 그들은 결코 옛 주인을 새로운 주인으로 대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⁴⁰⁾

제임스는 1960년에 ‘민족민중운동’을 탈퇴한 이후 곧 런던으로 돌아왔고, 1965년이 되어서야 다시금 트리니다드의 현실 정치에 관여하게 되었다. 제임스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참여 민주적 대중정당을 건설하기를 추구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계급 정치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었다. 이러한 강조점의 변화는 독립 이후 본격화된 인종 적대의 정치 때문이었다. 트리니다드는 아프리카계·인도계·중국계 등으로 구성된 다인종

39) *Ibid.*, p. 137.

40) *Ibid.*, pp. 138-140.

사회였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집단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은 아프리카계와 인도계였다. 전자는 주로 유전 산업과 도시에, 후자는 설탕 산업과 농촌에 각각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인종적 상황은 트리니다드의 독립 과정에서 고스란히 정치적으로 반영되어 아프리카계에 기반을 둔 〈민중민족운동〉과 인도계에 기반을 둔 〈민주노동당(Democratic Labor Party)〉의 양당 체제가 성립하게 되었다. 이들 인종 분리적인 양당 체제는 트리니다드 사회에서 인종적 적대를 강화하는 근본적인 토양이었다.⁴¹⁾ 제임스는 반식민주의 투쟁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 노동운동의 역사적 경험을 기반으로 이러한 인종적 적대의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다. 이러한 전략은 아프리카계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유전 노동자들과 인도계가 다수인 설탕 노동자들의 단결을 추구하는 것이자, 아프리카계 노동자들과 인도계 농민의 연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⁴²⁾

제임스는 〈민중민족운동〉과 〈민주노동당〉이 트리니다드에서 민족적 공동체의 창출이 아니라 인종들 사이에 의심과 적대만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임스는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계급에 기초해서 인종적 화합을 추구하는 새로운 참여 민주적 대중정당이 트리니다드에서 요구될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낙관적 근거는 1965년 파업 때 유전과 설탕 노동자들의 연대 활동이었다. 이들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법적으로 통제하고자 시도했던 윌리엄스정부의 산업 안정법(Industrial Stabilization Act)에 연합해서 대항했다. 제임스는 인도계 노동자들이 아프리카계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트리니다드의 크레올 문화에 공통적으로 기초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이해가 계급적 연대의 기초 위에서만 충족될 수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제임스는 1966년 윌리엄스와 〈민중민족운동〉에 반대하는 노동조합 운동가들과 대학 내의 좌파 세력들을 규합해서 〈노동자농민당(the Workers and

41) 트리니다드의 인종 적대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임스의 노력과 관련해서는 하영준, 「트리니다드 인도계 이주노동자들의 (탈)크레올화, 1936-66: C. L. R. 제임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서양사학연구』 제 39집(2016), 249-277쪽을 참조.

42) C. L. R. James, "West Indians of East Indian Descent(1965)," *IBIS Pamphlet* No. 1, (Trinidad 1965), p. 3.

Farmers Party)》을 결성하게 되었다.⁴³⁾ 제임스가 부의장이 된 이 정당은 결의는 높지만 소규모의 허약한 정당이었다.

제임스와 노동자농민당은 자신들의 주요한 정책으로 농지개혁을 제시했다.⁴⁴⁾ 농지 개혁은 트리니다드 농업을 지배했던 플랜테이션 대농장을 해체하고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정책이었다. 제임스는 농지 개혁이 새로운 농업 생산자계급을 창출하고 생산력을 향상시켜 곡물 수입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농지개혁이 불러일으킬 생산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은 농민들을 문화적·과학적 전망을 가진 주민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노동자농민당>은 농지개혁이 잔존하는 식민지 경제구조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인도계의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농업 공동체를 해체하여 인종적, 문화적 교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제임스와 <노동자농민당>은 국가 계획 경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국유화에 기초한 경제가 아니라 오히려 개별 기업들의 국유화를 지양하면서 경제 발전의 전체 방향에 대한 전략만을 국가가 제시한다는 의미였다. 제임스가 국가계획 경제를 주장하면서 염두에 두었던 것은 그가 가나의 움크루마와 <인민회의당>에게 권고했던 ‘위로부터’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도입하는 경제 전략이었다.

그러나 <노동자농민당>은 1966년 선거에서 대패했다. <민중민족운동>이 52.4%, <민주노동당>이 34%를 차지한 반면, <노동자농민당>은 3.5%를 획득해서 한 석의 의석도 차지하지 못했다.⁴⁵⁾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결과였다. <노동자농민당>은 계급정당을 표방했지만 아래로부터 대중의 참여를 통해서 조직되지 않았고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급조된 선거정당에 불과했다. <노동자농민당>은 제임스가 구상해왔던 참여 민주적 대중정당이 아니었다. 이러한 선거정당을 통해서 정치적, 문화적으로 깊게 뿌리내려 있는 인종적 분리와

43) 노동자농민당의 결성 과정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하영준, 「트리니다드 인도계 이주노동자들의 (탈)크레올화」, 270-271쪽을 참조.

44) Paget Henry, C. L. R. James, "James and the Caribbean Economic Tradition," *C. L. R. James's Caribbean*, pp. 165-171.

45) Selwyn Ryan *Eric Williams, The Myth and The Man*, p. 379.

적대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지나친 낙관론이었다. 게다가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는 지나친 성급함을 보였다. 제임스는 이 선거 패배에 큰 충격을 받았고 곧 런던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리고 <노동자농민당>도 얼마 있지 않아 곧 해체되게 되었다. 제임스는 이후 더 이상 트리니다드의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다

V. 맺음말

제임스의 정치적 낙관론에는 서인도 공통의 크레올 문화가 아프리카계와 인도계 사이에 인종을 넘어선 계급적 연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그의 기대가 깔려 있었다. 그는 서인도가 지니는 민족적 정체성의 토대에는 ‘실향민(expatriates)’이라는 공통의 정서가 있다고 주장하고 여기에 기초해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과 공동체를 창출할 수 있을 가능성을 탐색했다.⁴⁶⁾ 백인 지배자들, 흑인 노예와 자유인들, 인도계 이주민들 등 어느 누구도 그 단어가 허용하는 의미에서 ‘토박이(native)’가 아니었다. 서인도는 선주민인 인디언들이 인구학적으로 거의 전멸되었기 때문에 토착 문명은 존재하지 않았다. 유럽의 아프리카와 아시아 식민지들과는 달리 자신의 토착 언어, 토착 종교, 토착 문화 등이 없었다. 서인도 주민은 강제적이든 자발적이든 이주한 처음부터 서구적 생활방식을 훈련 받았다. 서구화된 근대적 생활 방식은 인도계 이주민이 다수를 이루는 영국령 기아나에서조차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서구적 생활 방식의 수용은 식민지 사회의 일방적인 동화가 아니라, 재구축과 상호 형성의 과정이었다. 서인도인들은 서구문명을 습득하고 변형시켜 자신만의 문화를 창출할 수 있었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⁴⁷⁾ 제임스는 유럽계·아프리카계·인도계·중국계 등 모든 인종이 참여하는 서인도라는 지역적 토대에 기초한 민족 형성을 꿈꾸었다. 이러한 전망은

46) 이와 관련된 세부적 논의는 하영준, 「트리니다드 인도계 이주노동자들의 (탈) 크레올화」, 259-269쪽과, C. L. R. James, “From Toussaint L’Ouverture to Fidel Castro(1962),” p. 313을 참조.

47) C. L. R. James, “Presence of Blacks in the Caribbean and its Impact on Culture(1975),” C. L. R. James, *At the Rendezvous of Victory: Selected Writing* (Westport, Connecticut: Lawrence Hill & Co., 1980), p. 218.

인종 본질주의에 기초한 정치적 갈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개방적이고 유연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아프리카계 출신이었던 제임스는 인도계 이주민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서인도의 크레올 정체성의 중심적 특징으로 그리고 있는 ‘사탕수수 농장과 흑인 노예제’로부터 시작되는 서인도의 역사 경험은 전적으로 아프리카계의 경험이었지, 인도계의 경험이 들어설 여지는 없었기 때문이다.⁴⁸⁾ 그는 아프리카계와 인도계 사이의 연대를 위한 토대로서 문화적 통합성(문화적 총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인도계 노동자들이 아프리카계와는 다른 방식에서 토착될 수 있을 가능성을 무시하였다. 따라서 제임스는 트리니다드의 다양한 인종 사이에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여기에 기초해 문화적 혼성과 정치적 연대를 창출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문화 정치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가 없었다.

또한 문화 정치를 전개할 주체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 제임스가 서인도의 정치 전략으로 구상했던 참여 민주적 대중정당의 문제이다. 이것은 농민이 인구의 압도적 다수를 이루는 식민지 사회의 해방을 위한 정치 전략이었다. 제임스는 참여 민주적 대중정당을 통해서 식민지 민중, 특히 농민의 투쟁과 자발성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제임스의 이러한 시도는 노동자 계급만이 유일한 혁명 주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농민을 새롭게 중심에 두는 제 3세계의 변혁 전략이라는 점에서 전통 마르크스주의의 서구중심주의 시각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그리고 제임스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식민지 근대성의 모순이 낳은 대중의 역동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대중정당을 여겼다는 점에서 좀 더 진일보한 측면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제임스에게 대중정당의 존재 이유는 권력의 장악이나 유지가 아니라 대중의 ‘자기 활동’과 ‘자기 조직화’를 고무하고 활성화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제임스가 추구한 참여 민주적 대중정당의 건설 방식이

48) *Ibid.*, p. 296; C. L. R. James, “The Making of the Caribbean People(1966),” pp. 173-190.

현실성 있는 전략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제임스는 민족주의 정당을 내무로부터 개혁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했지만, 이러한 전략은 오히려 자신의 손발을 묶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제임스는 식민지 해방 운동의 혁명성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 기초해서 이러한 자신의 전략을 추구했다. 가나의 〈인민회의당〉과 트리니다드의 〈민중민족운동〉은 참여 민주주의적인 성격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거나 곧 상실하게 되었다. 이들 정당은 오히려 반민주적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이러한 타락은 단순히 식민지 중간계급의 허약성과 무능력이 때문만은 아니었다. 영국 식민지배의 유산, 노동운동의 파편화, 인종적·문화적 분리 등 광범위한 사회적·문화적 조건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⁴⁹⁾ 제임스 스스로가 조직했던 〈노동자농민당〉조차 선거 승리를 당면한 주요 문제로 삼으면서 참여 민주주의적인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지 못했다. 제임스가 서구 사회민주당이나 공산당 같은 노동자 정당들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비판해왔던 전위주의와 관료주의가 다시금 등장했던 것이다.

따라서 서구 사회와 비서구 사회의 정치 전략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임스가 1940-50년대 미국 체류 시기에 발전시켰던 정치 전략을 기초로 반식민주의적 실천을 하는 것이 타당했다. 선거승리와 권력 장악을 위해서 대중정당을 조직·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인종·젠더 등 다양한 부분들의 ‘자기 조직화’를 할 수 있도록 고무하고 옹호하는 동시에 이러한 부분 운동이 지닌 본질주의화 성향을 경계하고 비판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러한 정치 전략은 광범위한 연대를 창출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문화 정치와도 접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적인 정치적·문화적 전략 대신에 급조된 선거 정당에 기초한 선거 승리라는 잘못된 시도는 비서구적인 해방 전략을 추구했던 제임스의 노력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신이 비판했던 서구 좌파 운동의 관료적 타락과 유사한 정치적 결과를 낳게 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 시기의 제임스의 정치적 시도는 자신의 크레올 마르크스주의의

49)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하영준, 「트리니다드 인도계 이주노동자들의 (탈)크레올화」, 272-276쪽 참조.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제임스는 서인도 사회의 특징을 서구 문화의 전유라는 크레올적 개념으로 파악하면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적 제도, 특히 정당정치를 영국령 서인도라는 식민 사회에 적절한 방식으로 지역화하고 토착화하고자 시도했다. 그가 추구했던 참여 민주적 대중정당이라는 형태는 이러한 제임스의 시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제임스가 마르크스주의를 식민지 사회의 지역적 조건에 맞게 크레올화하고자 했던 시도는 전후 식민지 해방 운동을 지배했던 민족주의적 흐름에 적응하려는 시도이자 이를 보다 민주적 형태로 변용하고자 한 노력이었다. 그는 영국령 서인도의 민족주의를 탈식민적 방식으로 즉 단일하고 고정적 정체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실향민’라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정체성에 기초한 방식으로 새롭게 접근하고자 했다. 그러나 제임스의 이러한 시도는 식민지 민중의 ‘자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고무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치적 전략 속에 영국령 서인도 사회의 다양성과 다층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실패하게 되었다.

서울여자대학교, hayoungjun@hanafos.com

주제어(key Words):

C. L. R. 제임스(C. L. R. James), 에릭 윌리엄스(Eric Williams), 콰메 응크루마(Kwame Nkrumah), 참여 민주적 대중정당(Participatory Democracy Party), 크레올마르크스주의(Creole Marxism)

(투고일: 2016. 10. 23, 심사일: 2016. 11. 05, 게재확정일: 2016. 11.14)

<국문초록>

C. L. R. 제임스와 카리브의 탈식민화

하영준

이 연구는 1950년대 말 이후 C. L. R. 제임스가 자신의 모국인 영국령 서인도의 식민지 독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기를 다루고 있다. 제임스 연구자들은 이 시기 제임스의 활동을 앞선 1940년대 미국 체류 시기와는 정치적·사상적으로 단절된 것처럼 다루어왔다. 제임스가 서인도 독립 운동에 참여하면서 레닌주의적 전위정당 개념을 거부하고 노동계급과 대중의 자율성을 강조했던 이단적 마르크스주의자에서 엘리트주의적 민족주의자로 전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제임스의 탈식민적 전략이 그가 1940년대 동안 이단적 마르크스주의자로서 발전시켰던 전망에 기초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제임스는 자신이 서구적 맥락에서 발전시켰던 이단적 마르크스주의를 1950년대 식민지 해방운동의 정치적 분출이라는 상황에 비추어 수정하고 영국령 서인도의 지역 조건에 맞게 ‘크레올화(creolization)’ 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는 전통 마르크스주의의 예측과 달리 전후 식민지 해방운동을 주도한 것이 노동 계급이 아니라 농민 계급임을 인식하고, 이들의 정치 활동을 “아래로부터” 확장할 수 있는 참여 민주적 대중정당의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참여 민주적 대중정당은 영국령 서인도에서 반식민지 투쟁이 식민지 엘리트 지식인과 중간계급의 부정적 영향(신식민주의)으로부터 벗어나 민중의 열망에 기초하여 진정한 독립과 해방을 획득할 수 있게 도울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임스의 정치적 시도는 영국령 서인도 사회의 다양성과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민중의 ‘자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고무하는 데 결국 실패하게 되었다.

<Abstract>

C. L. R. James and the Postcolonial Politics in the Caribbean

Ha, Young-jun

This study deals with the period that C. L. R. James had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national independence of the British West Indies since the late 1950s. James researchers have treated James's anti-colonial struggles in the British West Indies as politically and ideologically disconnected from his marxist activitie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1940s and the early 1950s. It is said that James was apparently quite converted to West Indies nationalism from unorthodox marxist views which rejected the Leninist concept of the vanguard party and emphasized the autonomy of the working class and the masses. This study contends that James' political strategy for national independence was based on perspectives that he developed as a heretical marxist during the 1940s.

James attempted to revise his marxism in the post-colonial situations since the 1950s and to creolize it in the local conditions of the British West Indies. Unlike predictions of orthodox marxism, he recognized that the peasant class, not the working class, in the colonies took the lead in th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after World War II, and raised the need to expand their political activities 'from below' through a participatory democratic mass party. It would help the anti-colonial struggle in the West Indies to get away from the negative influence (neo-colonialism) of the colonial intellectuals and the middle class, and to obtain true independence and liberation based on people's aspirations. But James' political attempts eventually failed to encourage the 'self-activity' of the colonial masses, because they did not reflect diversity and difference in the British West Indies.